



법조인 동정

‘책사’ 혹은 ‘황태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쏠린 기대와 우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최측근인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면서 향후 법무부장관이 민정수석을 겸하는 ‘왕(王)장관’의 위상을 가지게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윤 당선인은 대선 공약인 ‘민정수석실 폐지’에 대해 당선 직후 “대통령실 업무에서 사정, 정보조사 기능을 철저히 배제하고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과거 정권에서 균기반장 역할을 하던 민정수석은 우병우, 조국 수석을 거치며 폐지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하지만

민정수석의 가장 강력한 권한인 ‘인사검증’을 법무부 장관이 넘겨받게 되면 과거 민정수석을 뛰어넘는 왕장관이 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이와 관련 14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 검사장에 대해 “그냥 법무부 장관이 아니다”며 “윤석열 정부의 ‘왕장관’이자 ‘황태자’”라고 했다.

한 검사장의 등판에 대해 정치권은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분위기다. 지난 대선 윤석열 캠프에서 활동했던 국민의힘 한 관계자는 최근 기자를 만나 “윤 당선인이 기대 이상의 정부 능력을 보여주고 있다”며 “그 뒤에 한동훈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당선인이 대체로 여의도 경험이 없어 초반 흔들릴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인사권을 바탕으로 새 정부 조직을 장악해 나가고 있는데 그 배경에 한동훈의 조언이 있다는 관측이다. 이 관계자는 “한 검사장은 윤 당선인의 ‘책사’”라며 “훌륭한 참모를 옆에 두는 것이 왜 문제인가”라고 반문했다.

반면 걱정스러운 시선도 있다. 최근 주식시장에서는 이른바 ‘한동훈 테마주’가 벌써 강세를 보이고 있다. 국민의힘 한 관계자는 “별써 차기는 한동훈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고, 이것이 먹히는 반증이 한동훈 테마주다”라고 했다. 한동훈 후보자가 ‘차기 권력’으로 인식되는 상황에서 자칫 과거 황태자로 불렸던 박철언 전 장관의 전철을 밟을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6공 황태자로 불렸던 박 전 장관은 정

부 주요 인사를 주무르는 실세였는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활동 영역이 ‘법무부’를 뛰어넘을 지 모른다는 것이다.

여기에 더불어민주당이 오히려 한 검사장의 ‘급’을 올려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국민의힘 안팎에서는 법무부 장관 청문회가 열리면 “오히려 한 후보자를 키워주는 역할을 할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그를 잘 아는 한 법조계 인사는 “한 후보자는 워낙 논리가 정연해 민주당도 만만치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고 했다. 민주당은 한 검사장 청문회 보이콧을 논의 중이다.

이러한 우려와 기대에 대해 지난 대선에서 윤 당선인을 도왔던 한 법조인은 “원래 자신이 가장 아끼는 측근은 조금 멀리 두는 것이 좋다. 잘못하면 조국 전 장관처럼 된다”며 “그런 의미에서 법무부 장관을 시킨 것인데, 오히려 더 견제를 받게 됐다”고 했다.

(출처/주간조선)